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예배

7시30분  
10시  
3시  
7시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7월 29일 ( 제961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정우철 목사

## 부탁&사정

나는 교단 내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사정을 하지 않는다. 부탁을 할 뿐이다. 부탁과 사정은 분명히 다르다. 사정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말하고 뭔가를 간청하는 것이라면, 부탁은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기에 그렇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주의 일을 사정한다. 건축 현금을 좀 해 달라, 봉사를 좀 해 달라, 기도회에 나와 달라, 전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한다. 왜 그럴까? 주의 종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권위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성령의 권능을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으셨다. 권위로 부탁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8~20).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고 했다.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면 불평이 없고, 오해가 없기 때문이다.

부탁과 사정이 다른 또 하나 이유는 이것이다. 부탁은 정당한 것을 맡기는 것이나 사정은 불합리한, 타탕하지 못한 일을 간청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더욱 교회 안에서 사정해서는 안 된다. 주의 일은 당당한 것이고, 결국은 성도 자신들을 위한 것인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성도들에게 부탁하지언정 사정하지는 말라.

# 거짓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다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도 성산에 오르려는 자들의 믿음 앞에서는 손을 들었다. 23일부터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된 하계산상집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로 가득했다.

첫날 단에 오르신 목사님은 ‘빛에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듯이 진실에는 오해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어두움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빛이듯, 거짓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고로 진실과 거짓이 하나 될 수 없고,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앞에서 어두움은 도망쳤습니다. 어

두움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빛이 들어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잠6:16~19).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많은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이 원인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대가로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거짓된 자는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하게

하며 나 자신과 싸워 이기려고 애씁니다. 요한복음에는 24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동안 진실 되게, 늘 빛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까? 자꾸 일이 괴입니까? 조용히 자문자답해보십시오. 내가 진실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내가 어두움 속에 있는지 말입니다.

커튼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듯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빛이 들어와 어두움이 죽겨납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상사에게도, 성도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진실되세요. 하나님의 기도처럼 진실된 기도를 하고, 두렵돈을 드린 과부처럼 진실된 현



2018 하계산상집회(7월 23일~8월 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오면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 넘어진 원인들을 다 알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직도 되는 게 없고, 자꾸 넘어지고 부딪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되고, 그것들에 얹매어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진실된 자는 빛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고, 당당하고 자신이 넘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제가 늘 당당한 것은 진실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자라 가끔은 눈 질끈 감은 채 넘어가고 싶은 일도 있지만,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라”

금을 드리고, 다윗처럼 진실된 회개를 하세요. 분명히 진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후에 한 시간 동안 통성기도를 시키심으로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주었고, 예배를 마치며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안수해주셨다. 다음 주까지 하계산상집회를 계속된다. 모두 이 집중된 영적훈련에 참석하기를 바란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을 안수해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다

구독신청 02) 533-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창26:12~13)

# 백배의 복을 받으려면 한눈 팔지 마라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삶은 출생(Birth)과 사망(Death) 사이의 선택(Choice)으로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선택만 잘했다고 인생이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선택된 것에 집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마19:30)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비결은 바로 '집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과 삼시에, 그리고 육시와 구시, 심지어 십일시에 들어와 일한 사람도 일을 마치고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자가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쟤들은 늦게 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같은 돈을 주느냐?"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고, 주었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저 사람의 품삯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니 참견마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을 얻지 못하면 그 날은 공지는 겁니다. 공지는 줄 알고 상심해 있었는데 삼시에 불러주니, 더욱이 육시와 구시에, 심지어 십일시에도 불러주니 일꾼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일에 집중하고 몰두했을 테니 아침에 들어온 자만큼, 아니 그 이상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을 아끼지 않고 동일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이 끼니가 간 곳 없는 법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려면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방울도 계속 같은 자리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니 사업이든, 공부든, 정치든, 기술이든 한 눈 팔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면 성공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압니까?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이것 조금하다 저것 조금하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한 것에 집중, 올인(All-in) 했습니다. 귀는 막고, 눈만 뜨고 그것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자고로 개는 짖어야 하는 것이고, 비평가는 비평해야 하고, 평론가는 평론해야 하는 것인데, 그 소리 다 들으면 어

찌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 끼니 간 데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막에서도 집중적으로 깊게 파보세요. 어디서든 물이 나오는 겁니다. 파다 말다 하니까 건수만 나오다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파는 우물을 다 샘이 터진 것은 집중적으로 깊이 우물을 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것에 집중했기에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길 가에 뿐어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돌

신 것이고(요4:24),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집중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마6:7).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14:26). 이들을 다 원수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을 끊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가 잠깐 가족과 인사를 나누겠다고 예수님께 고하자 "손에

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죽어가 노라"(빌3:13~14). 이는 경주자는 오직 경주에 주의를 집중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그는 오직 풋대이신 예수 그리스도(히12:1)만을 바라보고 경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실 상을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 집중시키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면류관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 세계와 싸워 이기려면 먼저 너와 싸워 이겨라

저는 8월에 있을 베트남 집회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선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 속에는 온통 이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남미를 복음화 했던 것처럼, 구소련지역을 복음화 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일대를 복음화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여러분 앞에 두셨습니다(신30:15). 이것은 당신 마음에 달렸습니다. 무엇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4)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중(集中)이란 마음과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정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영혼이 잘 되고 싶다면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욥8:7).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작  
밭에  
뿌려 바  
로 말라 죽  
였고, 어떤 사  
람은 가시밭기에 뿌  
렸다고 합니다. 길 가에 뿌린  
자는 대충 씨를 뿌린 자요, 후자는 환난  
이나 텁박, 이 소리 저 소리에 넘어진 자  
요, 가시밭기에 뿌린 자는 세상의 염려  
와 유혹과 욕심에 흔들린 자니, 그들의  
공통점은 다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  
다. 그런 자들이 거둘 것은 없다고 성경  
은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선택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몰  
두하십시오.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  
십시오. 헛볕에 돋보기를 대고 오래 있으  
면 검은색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아무리  
이름드리나무라도 한 곳을 집중해서 도  
끼질하면 언젠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어  
떤 분야에 일인자가 되고 싶습니까? 집  
중하십시오. 될 때까지, 이를 때까지!  
신앙에 성공하는 것도 집중력에 달려 있  
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령  
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잡다한  
생각 없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

주를 따라 가는 길이 '좁은 길'(마7:13)이  
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너른 길, 평안한  
길이 있어 늘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그 나  
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  
아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  
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

## 양쪽 말 다 듣는 지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옥을 당하느니라”(잠18:13),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잠18:17).

남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빨리 말하고 싶어서, 혹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은 자랑과 착각으로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거나 한쪽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삶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남의 말을 끝까지 충분히 들어주는 것과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맥을 충분히 잡은 후 일침일 테니까.

위대한 성군 다윗도 우리가 늘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했는데, 사소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만한 좋은 예이다(삼하16:1~4, 삼하19:24~30). 이들 암살률

이 반기를 들자 문무백관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는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먹고 마실 것을 싣고 피난길에 찾아왔다. 다윗이 “네 주인 므비보셋은 왜 안 왔느냐?” 하니 시바가 “그는 지금 자기 아비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릴 때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다고 참소한다. 화가 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고 지금부터 므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은 시바네 것이 되라고 결정해서 명령한다. 뒤에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올 때 거지꼴이 된 므비보셋

이 요단강 가에 환영하러 나왔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제는 나를 환영하러 나왔느냐?”고 호통하니 므비보셋이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이번에도 므비보셋 말만 듣고 “그려면 그 재산을 시바와 반씩 나누라.” 한다. 위대한 다윗도 계속 한 쪽 말만 듣고 일을 결정하는 실수를 반복했다. 세상의 법도 원고와 피고, 그 뿐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의 편이 되어 법정공방을 벌이며 실수하지 않고 재판하려고 애쓰는데, 사소한 일이라도 쉽게 한 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 말만 듣고, 혹은 전도사 말만 듣고 무슨 일을 결정하여 많은 상처를 주고 교구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과정에서도 안방에서 듣고 나와 부엌에 가서 들어봐야 실수를 안 한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자녀들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직원들끼리도, 양쪽 이야기를 잘 듣고 지혜롭게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내 속의 의견도 긍정과 부정의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합 왕에게 왔던 미가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매사 조급하게 판단하여 화를 내거나 남을 비하하거나 잘 못된 결정을 내려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다윗의 반복되는 실수를 거울삼아 보자. 개새끼도 한 번 두들겨 맞은 구멍에 다시는 안 들어간단다.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 있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쇠똥구리와 나

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별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욥25:4~6)?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별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돋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령한다고 하셨다’(사41:14).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롬8:30).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 가셨나 이 별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우리네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별레 같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진리의 학당 ::

## 하나님과 인자 (빌립보서 2:5~8)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자가 되셨는가? 흑암은 무엇이며 인간은 왜 그의 모양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품속의 아들을 사랑하사 그를 위해 우편보좌를 지으셨고(히 1:2,8),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되 종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늘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빌 2:5~11), 인자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의 쳐소로서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 안에 주의 뜻을 이루려고 출생과 죽음이 있는 인간을 만드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는 위계를 인정하시고 겸역하여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신 자신을 인자라 하셨다(요14:28).

보좌의 기초는 의요, 의는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자의 마음이니, 곧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출생을 맛보고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시89:14, 빌2:5~8).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과 같이 임하시기 위하여 인자가

출생하실 그릇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 한 이후에는 부득불 피흘리는 직분으로 기름부음 받아 오시게 되었다(히10:5~18). 그래서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진리를 성령이 증거 하신다 했다(요일5:5~8). 그러므로 인간은 인자되시는 이의 도구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모름지기 인간은 예수로만 살도록 조직되었다(요15:4~7).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것은, 예수는 인자가 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죽임 당하도록 보내셨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 임하여서 인자가 되심으로써 아버지를 지극히 높이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이다. 마귀는 교만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벧전5:5~6). 인간이 우상처럼 여기는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거만하게 하고 능력은 자만하게 한다. 이를 통틀어 오만이라 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1:1).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믿고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참 신앙이다. 이슬람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천주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예수 님의 어머니라 하여 예수를 마리아의 품에 둔다. 인자를 알고 믿으므로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고, 세상 신들을 다스릴 권능이 따른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5:5).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길을 택하심은 아버지를 향하신 아들의 참 마음이니 우리 영혼 또한 인자의 겸손과 순종의 영감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모신 보좌로 가능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인자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히2:9) 출생과 죽음을 맛보셨으니, 우주는 그가 출생하고 죽음과 부활할 영적기능을 위함이요, 사람을 자

기의 모양으로 만드심은 그에게서 출생하여 하심이니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롬11:36). 그러므로 인생은 겸손하신 인자의 철경이라(미5:2), 출생을 기뻐하며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창3:15~16).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자의 마음 때문에 인생이 지음을 받았으니 폐일언하고 인생은(롬 5:14)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함이 마땅하다(벧전5:5~6). 마귀는 스스로 속아 교만이 그의 속성이 되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 땅에 임하신 인자를 시험함으로써 스스로 망하고 말았다(눅10:17~20). 겸손한 자가 마귀를 이김은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김과 같다.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행하는 불신앙과 귀신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이지만, 인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를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첫째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계20:4~6),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자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계22:1~5).

박덕규 목사

#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것

'님의 뼈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항상 내 것보다 타인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타인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남의 것이 늘 커 보이니 마음을 다잡고 감사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가져서 지금은 13개월 공주님의 엄마가 된 친구였다. 한 사람은 사회생활로, 다른 한 사람은 육아로 서로 바빠서 매번 만나자는 연락만 하다가 어찌어찌 짬을 내어 만나게 되었다. 친구네 집 앞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전하고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때마다 짬을 내어 여행을 다니고, 업무 차 제주도를 당일치기로 다녀온 내 일과를 들던 친구는 문득 부럽다는 말을 하며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이 놀러가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며 또 다시 하하호호 웃다가 친구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친구의 아이가 커가는 것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끌어야 할 숙제인 졸업논문이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먹고 사는 평계로, 바쁘다는 평계로 졸업논문은 계속 차순위로 밀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친구가 졸업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며 기뻐했는데, 문득 그 친구의 졸업이 너무 부러웠다. 아이를 키우는 친구를 보면 아이가 부럽고, 논문 통과한 친구를 보면 졸업이 부럽고… 친구들을 보고 부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고 말았다. 팬스레 조급해지는 마음에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양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추슬러 기도를 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되짚어 읽어보았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가정의 축복과 직업의 축복을 받았다. 공부와 일에 매진해도 한없이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고, 졸업이 급해 생활비를 쪼개가며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다. 온 나라가 불경기이고 사업장 앞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 되어 주변 학원들이 다 문을 닫지만, 내가 운영하는 학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는지, 왜 감사하지 못해서 가족들을 괴롭게 했는지 후회스러웠다.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며 내 길을 즐겁게 가야겠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나의 모습이라 믿는다.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은 뒤의 세상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면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시고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Good News

민약에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를 숨이 차서 제대로 부를 수가 없을 것이며, 연주자들도 체력이 고갈되어 마침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매한 인생들은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쉼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쉬지 않고 날개 짓을 하며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쁘고 분주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아무리 힘차게 달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천하에 어리석은 자는 바쁜 일에 쟁여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안락한 노후를 기대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고생이 끝나면 죽는다.'는 선친들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자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보다 사후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참으

### ₩ 태도와 언어는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

The attitude and language show one's future.  
态度和言语表明那人的未来。

### ₩ 태도와 언어는 성공의 열쇠다

Your attitude and language are the key to your success.  
态度和言语是成功的钥匙。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50세의 A씨는 수개월간 지속되는 소화 불량과 복부팽만, 트립의 증상이 있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위축성 위염이란 위염이 반복되어 염증이 점막층 깊은 부위까지 침범하여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위선이 파괴되고, 위벽이 하얗게 얇아지며 소화가 잘 안 되는 질환이다.

장상피화생은 위축성 위염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위장점막세포 대신 비정상적으로 소장이나 대장점막세포로 대체된 것이다. 소화액을 분비하는 샘이 없어지고, 색깔도 회백색으로 바뀌며 작은 돌기가 생기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깊다. 오랜 기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으면 위장 점막이 만성적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과정을 거

쳐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꼭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위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병원에서 위암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적어도 수년 전부터 이미 암은 시작된 것이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모두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소견이 있지만 이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노화 과정의 하나이기도 하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에서 위축성 위염을 거쳐 장상피화생까지 진행되려면 수십 년이 소요된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은 내시경을 통해 의사가 눈으로 진단한다. 비관적인 의사들은 흔적만 보여도 암을 일으키는 소견이 있다며 겁을 주는 반면, 낙관적인 의사들은 그 정도는 그 연

령대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이처럼 의사의 주관이 상당 부분 관여한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지니고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장상피화생의 경우 위암발생률이 10배나 높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일단 장상피화생은 30대의 10%, 70대 이상인 경우 40%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소견이다. 조사에 의하면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있는 사람은 많아야 50명중 1명꼴로 위암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소견이 있음에도 50명 가운데 49명은 위암 없이 여생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1명도 내시경을 통해 일찍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 메모의 비밀

모든 국민을 남과 여, 집주인과 세입자,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로 메모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메모를 하는 사람은 늘 메모를 하지만, 메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메모를 하지 않는다. 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생길까?

메모는 기록이고 자신의 기억을 돋기 위해 짤막하게 글로 남기는 행위이다. 그럼 왜 기억을 돋기 위해 메모를 할까? 메모를 한다는 의미는 이 메모를 나중에 필요시 다시 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럼 나중에 다시 본다는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 바로 '나는 이 메모를 통해, 이 기록의 행위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면의 의지 표출이 담겨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메모를 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나 같다. 메모를 하는 사람은 늘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늘 하지 않는다. 물론 메모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배우지 못했거나 자신의 기억력에 자신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메모를 시작해야 한다. 종이 노트든 핸드폰 메모 어플이든 기록할 수 있는 아무 것이라도 좋다. 기록의 행위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떠올리게 되고, 내 생각을 정리 할 힘을 얻으며,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차곡차곡 쌓이는 데이터 확보의 도구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무서운 것은 메모하는 사람은 메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모모한 잉크가 낫다. 이제 펜을 들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 청소년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8월 6(월)~8일(수)

청년대학부 수련회  
8월 9(목)~11일(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